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올바른 판단

(요 7:17-24)

이종윤 원로목사



사람이 여러 가지 과오를 범하는 중 가장 큰 과오는 자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면 그것은 오판 중의 오판입니다.

1. 판단의 기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17절)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은 1년 전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중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안식일의 율법을 깨뜨렸다는 죄목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죽음에 몰리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갈릴리 지방으로 피신을 하시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시다가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1년 전 그 일을 군중들은 잊어버렸지만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잊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미워하고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7:19)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의 심령을 벌써 꿰뚫어 보시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24절)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것은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의 갈등은 유대인들의 판단 기준인 율법과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율법을 좇는 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19절 상)

(1) 율법을 좇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율법을 좇는 자는 율법으로 판단을 받게 되므로 저주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삶의 표준, 믿음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까지도 안식일에 죄를 범한 자라고 하며 율법을 근거로 저주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내가 하나만 있지 않았 습니다. 다윗은 더욱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을 뿐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 기까지 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6, 7계명을 범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의 하나님이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들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 율법 좇는 자의 위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레위기 12장 3절을 보면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8일이 안식일인 때가 있습니다. 율 법에는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했고 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날에 할례 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그들은 할 수 없이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스스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3. 율법의 역할

율법으로 구원도 못 받고 율법으로 살 수도 없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1) 율법은 거울

거울은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보여주는 해도 그것을 씻어주지는 못하나 더러운 것을 씻도록은 해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만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오실 예수님을 표상으로 보여주었고 희생 제물, 율법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 만한 양심을 주셨다는 것 밖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2) 희생 제물에 대한 가르침

구약의 유대인에게는 일 년 중 속죄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속죄일에는 희생 제사가 두 번 드려집니다. 한 번은 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인의 손을 얹고 그 위에 제사장의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에 염소를 광야로 방면하는 것입니다(레 16:21-22). 또 한 번은 성전 뜰에서 행하는 희생 제사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모세가 받은 깨어진 돌판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있는 그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므로 죄 용서함을 받는 의식이 속죄일에 행해지는 제사입니다. 깨어진 돌판은 우리가 율법을 깨뜨린 죄인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율법을 범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가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시대에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가까이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사명자대회 서울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1.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서울교회가 온전히 재건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되게 하소서.

2.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의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님 오실 때까지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되게 하소서.

3.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코람데오(Coram Deo)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가정에서 믿음의 계대를 이루게 하시며, 일터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4. 이웃을 위하여

코로나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소서.

5. 선교지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서울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와 선교동역자들을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충만으로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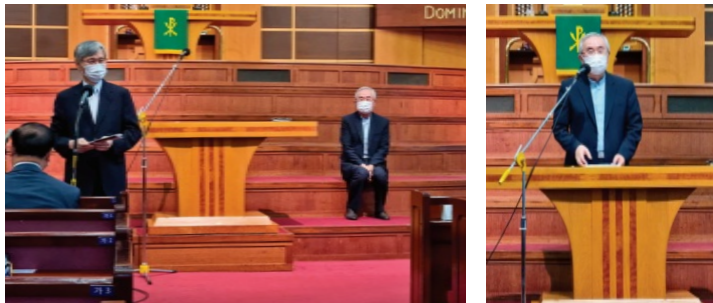
6.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발전되게 하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며,
제사장 나라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목사 청빙 제직회

지난주 찬양예배 시 타 노
회에서 시무하다가 서울교회
에 부임함으로써 서울강남노
회 이명 절차가 필요한 조동
수 목사님과 이번 총회 목사고
시에 합격하여 가을노회에서
목사 안수가 필요한 안용근
전도사의 가을노회 개회 전
관련 청원 서류를 위해 제직
회가 있었다.



좌) 제직회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는 임상현 장로
우) 제직회를 인도하는 손달익 담임목사

2021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2차 교육 일정

구분	일시	교육과목	강사
2차 교육	9월 5일(주)	직분자와 영성	전재홍 목사
	9월 12일(주)	구약개설	서명철 목사
	9월 19일(주)	신약개설	장석남 목사
	9월 26일(주)	예배모범과 주일성수	박미라 전도사
	10월 3일(주)	한국교회사	조원영 목사
	10월 10일(주)	총회헌법과 교회규정	당회(기획위원회)
	10월 17일(주)	교회행정 및 회계처리 과제물 제출일 (10월 25일)	당회(기획위원회)
면접 및 시험	11월 5일, 6일, 7일 중 택일	당회고시 및 당회원 면접	당 회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
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
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반주자 모집

고등부는 반주자를 모집한다.
고등부 예배시간은 주일 오전 9시-10시
20분이며 피아노전공자로 예배 반주와 대
면 예배 시 고등부 찬양대 연습을 담당하게
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초등부 교사모집

초등부에서 교사를 모집한다.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기대
하시는 성도들의 많은 지원 및 권고 바란
다.

- 이대원 전도사(초등부 교역자)
010-4454-0391
- 김혜언 집사(초등부 부장)
010-3923-9913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
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
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황수지(육사생도)
김은호 유성혁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건강검진의 명소가 되겠습니다



김동준 집사 (3교구)



코로나 펜데믹의 강렬한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역대급 무더위로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3교구의 김동준 집사가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연세라이프내과 건강검진센터를 개원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와 순례자가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잠실 새내역 4번 출구에서 불과 100m 떨어진 빌딩 4층에 위치한 연세라이프내과를 방문한 순례자는 먼저 병원의 큰 규모에 놀랐고, 대학 병원 수준의 건강검진 시설을 갖춘 것에 또 한 번 놀랐고, 무엇보다 원장인 김동준 집사가 혈기왕성한 30대 의사라는 것에 또다시 놀랐다. 소화기 내과가 전공인 그는 무엇보다 수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 대장 내시경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많은 분들이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므로 병이 깊어지거나 불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세라이프내과 건강검진센터는 위, 대장뿐 아니라 5대 암 검사와 심장, 복부,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등 다양한 검사와 주사 치료를 한다.

고 이강진 장로님의 말 사위이기도 한 김동준 집사는 개인 병원을 개원한 이즈음 소천하신 장인어른이 많이 생각난다고 한다. 공직에 있다가 변호사 개업을 했던 장인어른이 당시의 심정을 망향타도 없이 흘러가는 느낌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자신의 심

정이 꼭 그와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장인어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것처럼 지금 자신도 장인어른과 똑같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소아과 의사인 아내 이신혜 집사와는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나 결혼하였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다. 바쁜 부부를 위해 육아를 도와주시고 기도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장모 송미령 권사님에게는 늘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한다.

서울교회의 의료선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김동준 집사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의료 선교의 길이 막혀있는 현재의 상황이 많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의료 선교는 지금의 양상과는 많이 다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그나마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야 현장으로 찾아가는 의료 선교가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본다고 했다.

모든 분야의 자영업들이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역으로 병원을 개원한 김동준 집사는 기도하며 오래 준비한 만큼 곧 인근 지역의 소문난 건강검진의 명소가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막 비상을 시작하는 이 젊은 의료인에게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허숙 권사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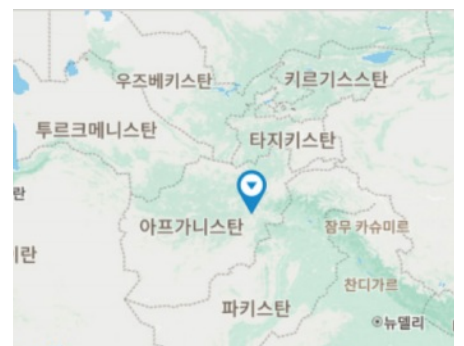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빠른 속도로 재점령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한 국민들의 목숨 건 피난 행렬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함락 소식이 들려진 직후 SNS와 카톡방에서는 "혼돈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하자"는 요청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교활동을 해온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역자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의 기독교 박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전 주민의 99%가 이슬람(Islam)교를 믿고 있는데, 수니(Sunni)파가 80%이고 시아(Shi'a)파가 19%에 이릅니다. 탈레반에서 기독교 전파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현재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은 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위기관리재단 등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선교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16일(현지



시각)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은 현지 상황에 대해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이들은 누구나 신앙 때문에 살해될 수 있으며, 가족에 의한 명예살인이나 배신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프간의 한 교회 지도자도 릴리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은 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를 위해 일하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합니다.

아프간 기독교인들은 주변국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프간 주변국은 페르시아어로 지역, 장소와 땅, 나라를 뜻 (4면에 계속)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Pray For AFGHANISTAN

(3면에 이어)
 하는 '스탄(-stan)'으로 끝나는 중앙아시아 7개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입니다. 현재 이런 주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종교적 이유를 감안했을 때 아프가니스탄 내 기독교인들을 도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아프간 기독교인들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를 위해, 핍박받을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25)



* 순례자는 신앙강좌부 강의 '우리말 성경의 역사'에서 배운 이수정 목사에 관한 책 '일본에서 한국을 선교한 이수정 선교사 이야기'를 추천한다.

이수정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총체적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평신도 선교사였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선

교에 있음을 일깨워 준다. 하나님은 이수정을 통해 일본에서 한국을 선교하도록 도구로 사용하셨다. 일본에서 선교지인 한국을 위해 한글성경번역, 유학생 선교, 주일학교 설립, 지도자 개발, 교회설립, 성경공부(제자훈련), 선교사 동원, 선교사 케어, 문서선교(미디어 선교), 문명퇴치, 한글교육선교, 캠퍼스 전도, 평신도 전문인선교, 봉사과 섬김 등 다양한 선교의 직무를 실천하였다.

이수정의 이러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선교사역을 총체적으로 볼 때, 이는 기독교 선교와 세계선교를 목표로 하는 현대선교사역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선교전략의 접근성에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교의 선교임에도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그리 많지 않기에 제대로 후손들에게 전함이 한국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업적이며 고귀한 유산이 되리라고 믿으며 널리 읽히길 바란다.

- 필자의 글 중에서 -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

수기 및 간증 공모
10월 31일(주)까지 수시 접수

1. 목적

교회 분쟁 시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나 감동적인 사연을 글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함

2. 일정 : 2021.6.1 - 2021.10.31

3. 진행 방법

- 수기형: 손글씨로 써서 사무국에 비치된 수기 공모함에 제출
- 동영상: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USB 저장매체로 제출
- 온라인: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4. 평가 방법

- 당회, 스테반회, 권사회의 각 2명과 분쟁백사 담당자 심사위원
- 교회 분쟁에 대한 개별적 경험과 신앙적 감동이 사실적 표현으로 작성된 수기 또는 동영상

동정

- 박사학위 취득 : 13교구 김점미 권사 백석대학교 기독교미술학 박사 취득
- 득남 : 5교구 박승기 집사 김택정 집사
- 떡 제공 : 오치열 장로 · 하숙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8월23일	월	겔 5-8		왕하 17-21	
8월24일	화	겔 9-12		왕하 22-25, 대상 1-2	
8월25일	수	겔 13-16		대상 3-6	
8월26일	목	겔 17-19		대상 7-11	
8월27일	금	겔 20-21		대상 12-17	
8월28일	토	겔 22-23		대상 18-25	
8월29일	주일	겔 24-27		대상 26-29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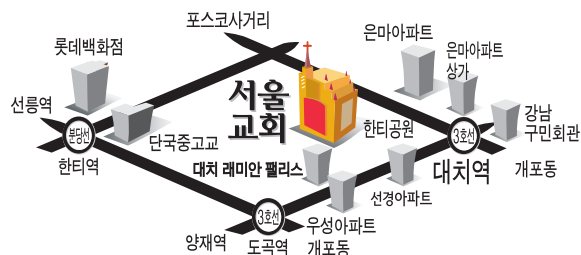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손달익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2.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어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3. 코로나 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나라가 법과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